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들어서면 차도 중앙에 ‘몽땅 플라타너스’ 두 그루가 서 있다. 이 나무들이 처음부터 키가 작은 건 아니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2016년 8월 초 좌회전과 유턴 차로를 늘린다는 계획 하에 가로수를 세 그루 정도 베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오후 5시 즈음 근처를 지나던 예술가 한 명이 이장면을 목격하고 뚝으로 굴삭기를 막았다. 동시에 지역문화예술인 네트워크 단체 ‘카톡방’에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청했다. 불과 30분 만에 10여 명의 예술가들이 달려왔고 실랑이 끝에 공사는 중단되었다. 공사 담당자들은 당황스러웠지만 늦은 오후의 상황은 지극히 우발적인 사건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모인 예술가들은 흠여지지 않았다. 그대로 남아 눈앞에 벌어진 현실에

지역 예술가로 산다는 것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현 상황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결정은 빨랐고 행동은 더 신속했다.

나무를 지키기로 했다. 사람들에게 나무가 잘린 사실을 알리려 했다. 모인 이들은 연극과 시각예술, 영상,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었다. 캘리그래피로 ‘나무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플래카드를 제작했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나무를 종이로 만든 꽃으로 감싸 주었고, 작업했던 굴삭기를 램프로 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선 주민들은 간밤에 벌어진 광경을 목격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 예술가들의 작업으로 인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마을 입구에서 수십 년을 지켜 오던 나무의 존재를 세삼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왜, 나무를 잘랐을까? 질문이 모이자 여론이 형성되었고, 나무를 살리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전문가 의견을 받는가 하면, 공사 중단에 대한 서명 운동, 가로수 보존에 대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이후 주민들의 요구로 공청회가 열렸고 유치원생부터 80대 노인까지 15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구청에서는 공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자발적인 토론회가 더 진행되었고 주민 대표단이 구청장 면담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공사는 중단되었다. 애초 세 그루를 제거하려던 공사는 두 그루를 그대로 남긴 채 종료되었다. 나무를 자르고 죽이려던 행정은 나무에 도포를 발라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후 ‘성북동 나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예술가뿐만 아니라 정치, 환경, 마을공동체, 상인, 일반 주민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초대되고 상황이 공유되었다. 현재 나무는 잘 자라고 있고, 지난봄과 여름에는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했다.

이 사건은 과정 자체가 마을공동체와 직접민주주의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예술가란 누구인가’라는 새로운 문제 제기 및 맞닿아 있다. 처음 공사를 막은 사람이 나 실시간 현장으로 달려온 사람들은 모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였다. 그들은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나무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고,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연이나 축제 등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달려왔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처럼 성북에 살면서 타지역에서 활동했다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을지 의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개념은 단순한 주거지로서가 아니라 일상적 삶과 경험의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나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사업 등을 통해 사라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예술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동체의 강조가 ‘모두를 위한 예술’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예술’에 가깝다. 이때 예술은 ‘지역성’의 문제와 결부된다. 지역성은 곧 뿌리의 문제이다.

뿌리와 근원은 다르다. 근원은 과거와 닿아 있지만, 뿌리는 현재의 문제이자 경험으로서의 삶과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자치’와 ‘분권’이라는 화두는 적절하다. 다만 이것이 잘 전개되면 지역의 다양한 자원, 특히 예술가 자원이 포함된 지역성을 잘 회복하거나 확보하는 일이어야 한다.

※황헌산 고려대 명예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광일춘추’ 필진에서 빠짐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이 새롭게 필자로 합류합니다.

종교칼럼



원목
선덕사 주지

포항과 빛고을

저물이 감을 알고, 병 속의 얼음을 보고 천하가 겨울임을 안다(見一葉落而知歲之將暮 睹瓶中之水而知天下之寒)고 했다. 작은 징조에서 큰 흐름을 읽는 것인데 실상 큰 흐름이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낱날 현상들 속에서 읽혀진 것을 추리하고 추상하여 붙이는 이름이 소위 ‘큰 흐름’이다. 그러나 롱패딩 옷자락에서 겨울을 보는 것이 과히 틀리지 않으리라.

작은 것 하나는 단지 그것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머금은 하나이다. 지금의 순간은 단지 이 순간이 아니라 모든 과거가 응집되고 모든 미래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신라 의상조사가 80권의 화엄경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법성계 속에 정리해놓은 말이 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이고, 하나를 온전히 해 내면 다른 것에도 능히 통할 수 있는 것일 테다.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많은 이재민이 생겨났다.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고 살림살이가 망가졌는데 천재지변이라 제대로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쫓겨나 살터에서 뛰쳐나와 체육관으로 교회로 피신한 사람들, 추운 날씨까지 더해 지니 얼마나 고단하랴. 그뿐 아니다. 수능

시험이 일주일 늦춰짐에 따라 60만 응시생들과 가족들도 혼란에 빠졌다. 실로 땅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이 흔들렸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발전소에서 고압으로 땅에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지진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다고 한다. 그것이 지진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관련성이 보인다고 한다.

하나의 낙엽에서 천하의 가을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현상에서 인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지나치게 안이하거나 우매했던 것이 아닐까. 혹은 사업 성공이라는 집단적 욕망이 진실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온 국민의 삶이 함께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나와 너는 별개인 것 같지만 관계의 그물로 보면 수많은 관계로 엮여 있다. 실로 한 몸이여 한 생명이다. 발이 아프든 아무 상관없이 즐거운 손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발이 아프면 그 아픈 곳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온 몸은 그

아픈 곳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머리나 심장이 몸의 중심이 아니라 아픈 곳이 중심이다.

예전에 머리는 높고 귀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진 어떤 이는 머리를 숙여 세수하지 않았다고 하니 누워서 잠을 자기는 했을지 모르겠다. 높고 낮을 얹어 바닥에 누웠을 때 자신이 가장 평화롭다는 것은 그늘에 발견하지 못했을까. 발에 가시가 박혔을 때 온몸으로 아파했음을 왜 깨치지 못했을까.

변방이며 부분이라고 나 자신을, 우리 마을을 작게 볼 것이 아니다. 내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 빛고를 없애 우리나라도 없다. 대한민국은 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며, 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 빛고을과 대한민국도 그렇고, 포항도, 진도 팽목항도, 사도로 아픈 성주도 그렇다. 어딘들 그렇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 가운데 지금 아픈 곳이 가장 대한민국이라는 것, 그래서 어찌 가장 대한민국이었던 빛고을은 오늘의 포항과 한 몸이다.

찬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 하나를 본다. 노란 잎사귀에 ‘한 몸 평화’가 고백처럼 아름답게 담겼다.

기고

다산이 주창한 목민관을 기대하며



박안수
경제학박사·전 농협 장흥군지부장

총리를 비롯,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돼 지역민들이 모처럼 반기고 있다. 가깝게는 지난 대선을 비롯한 대부분 선거에서 호남인들은 늘 전략적이면서 위대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전국의 많은 도지사과 시장들이 대선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내고 예선과 본선에 진출했지만, 유독 우리 호남에서는 유력한 후보 한 명을 내지 못한 점은 어쩐지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더욱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호남에서 비중 있는 정치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진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적극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차기 대선에서도 그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우려를 해 본다. 또한, 서울·경기에 우리 호남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지만, 남도 출신 중 서울시장에 도전했다는 기적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도 남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서울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

하고자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 또한, 자천타천으로 광역 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 입후보자들이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얼굴 알리기에 바쁜 듯하다.

후보자들의 포부처럼 그 자리가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냉정한 비판과 함께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근에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알게 되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도지사와 광역시장을 위원으로 제2의 국무회의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의 개헌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지방분권의 강화와 지방정부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 만큼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해진다는 뜻일 것이다.

옛날 과거 급제자들에게 주어지던 ‘능소화’라는 꽃은 선비의 기개처럼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기 싫어 절정기에 떨어져 버린다고 한다. 얼마나 멋있고 보기가 좋으냐.

최소한 기초 지자체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은 일정 부분 정치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리더십으로 지역 사회에 더 많은 봉사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일까.

집권 여당에서는 내년 선거 전략으로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참신하고 개혁성에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더불어 정치에 입문하려는 정치신인들이 앞다투어 당선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유력 정당에 입당 원서를 내는 사례가 많다 고 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은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지난 여러 선거에서 보았듯이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다.

다수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를 통해 주창한 목민관을 희망하는 우리 지역 후보들이 타산지서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社說

배추와 무 언제까지 산지 폐기만 할 것인가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갈아엎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배추와 무 얘기다. 갑작 채소 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고차 산지 폐기로 수입 안정을 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 모양이다. 지난해 배춧값이 폭등하자 관세를 면해 주면서까지 중국산 배추를 신속히 수입했던 점을 상기하면, 정부와 전남도 등 농정 당국의 농산물 수입 대책은 있거나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매시장 기준(지난 15일)으로 배추 한 포기는 전년 대비 67% 떨어진 1602원에, 무(kg당)는 130% 하락한 396원에 거래되는 등 폭락세가 확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판매되는 재배 면적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발매가 가격도 지난해보다 20% 이상 떨어져 배추 3.3㎡당 7000~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가격이 조만간 갑작스럽게 몰락

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면 더 떨어져 하락 폭이 커질 것이라는 데 있다.

이는 지난해 배춧값 폭등과 울어름 배추 가격 폭등을 경험한 농가들이 지난 9월에 가을배추 면적을 앞다투어 늘린 데다 기상 여건이 좋아 풍작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전남도내 3000t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 2000t의 배추·무를 산지 폐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농산물 수입 조절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미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만큼 그에 걸맞은 생산량 수급 조절 등 농산물 정책을 과학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예측, 김치 소비 감소 추세 등을 면밀히 파악해 그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국 농산물의 생산량과 시장의 흐름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론타워도 필요하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년 성과와 과제

내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2년째를 맞는 날이다. 그동안 걸음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 개관 이래 현재까지 53만 명이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문화 인프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이 심각한 데다 효율적인 조직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성장과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전당장 공백 상태가 개관 2년째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전당장 공백 사태는 문화전당 운영 차질은 물론 조직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부는 전당장을 올해 안에 선임할 계획이지만, 현재 문화전당 운영 기관인 아시아문화원장까지 공석인 상태

다. 그럼에도 문화전당은 2년 동안 국내 문화기관 가운데 최대 공연·전시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15년 이후 선보인 공연은 모두 130건이었으며 전시 55건,

교육 42종, 축제 20건 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양적으로는 전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 개관 이래 현재까지 53만 명이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문화 인프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도 문제다. 현재 문화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1명, 아시아문화원 150명 등 모두 200여 명의 인력이 있는데 이는 애초 필요 인력으로 추산한 42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인력으로는 행정적 업무만을 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력 확충과 함께 당장은 수급 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전당장 선임을 서두르되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화전당이 ‘문화발전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과 맞물린 민주평화교류원도 문화전당이 풀어나갈 과제다.

無等鼓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1887~1965)는 건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이다. ‘현대 건축의 조형 원리’는 단지 르 코르뷔지에의 ‘아류일 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가 설계한 롱상 교회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상징문자’라는 칭송을 받는다. 그를 수식하는 찬사에는 항상 ‘20세기’라는 수사가 곁들여진다.

르 코르뷔지에에 그러나 그 명성에 걸맞은 완벽한 건축가는 아니었던 것 같다. 대표작 빌라 사

거장 르 코르뷔지에

만을 세워 건물을 지탱한다. 이론상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 도쿄 국립서양미술관을 보면 공법만을 뒷받 칠 일은 아닌 것 같다. 10여 전 취재를 위해 들렀던 이 미술관은 르 코르뷔지에 작품답게 필로티 공법으로 건물을 들어 올리고 외벽에서 장식을 뺀 간결한 조형 언어를 보여 주고 있었다. 특유의 모던한 느낌을 주는 건물이었다.

일본에서는 1998년 지진 피해를 ‘없애기 위해’ 이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를

단행했다. 칼로 시루떡 자르듯 지반과 건물을 분리하고 그 틈새에 면진(免震) 장

치를 설치한 것이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려도 건물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최근 전문가들은 포항 지진 피해를 키운 주범은 필로티 공법이 아니라 부실시공이라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번 지진 사태를 계기로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공법을 문제 삼는 것에 앞서 고층·대형 건물들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근본 대책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르 코르뷔지에가 알못계도 대한민국에서 회자되고 있다. 포항 지진에서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필로티(pilotis) 공법을 건축에 적용, 유행시킨 주역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어로 기초 받돌을 뜻하는 필로티는 사부아에도 적용됐다. 이 공법은 1층에 벽체 없이 기둥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